

공단, 호남고속철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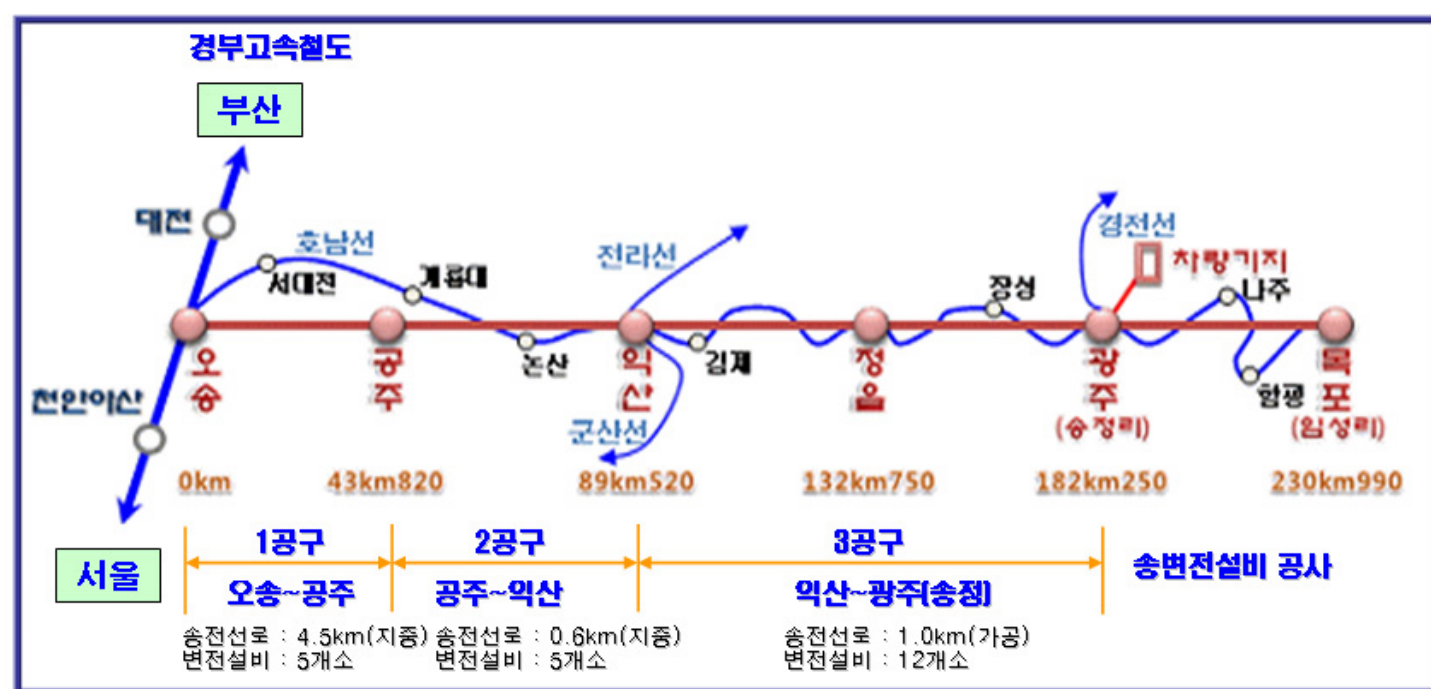
- 총 공사비 155억원 규모, 3개 공구로 분리발주 -

공단은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간)의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를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는 고속열차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155억원 규모의 공사로 오송~광주, 광주~익산, 익산~광주의 3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한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업체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특정회사 편중 낙찰방지를 위한 「1社 1공구 낙찰제」 등을 적용하여 지역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는 6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며 후속으로 전차선, 전력공사를 발주하여 14년 도말 호남고속철도를 반드시 완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학생 기자단 분당선 월드터널 현장 탐방

'서울의 조금 특별한 광역철도 현장을 가다' 라는 주제로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7명이 지난 5월 31일 분당선 3공구 월드터널 현장을 탐방하였다.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에서 시행하는 분당선 월드터널 현장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처음으로 한강을 월드터널로 건너는 신공법을 적용한 현장으로 기자단은 당 현장을 방문하여 공단 및 감리단 관계자와 함께 현황 설명, 동영상 시청, 현장 탐방 등을 하였다.

국토부 대학생 기자단 학생들은 철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컸고 일부 학생들은 철도전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지하철 건설현장에 직접 와 보고 신기해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철도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본부 정종진 기자)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기술세미나 개최

-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실용화 추진 -



녹색철도연구원은 지난 5월 31일 철도 전문 기술력 향상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 철도신호통신분야 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하는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무선통신 열차제어 기술과 철도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철도공단이 주관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참여기관별 연구개발 현황 및 시험선 구축 현황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사업은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하여 현대로템, 엘에스산전, 포스코아이시티, 대아티아이, 유경제어, 혁신전공사 등 국내 굴지의 철도신호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연구를 시작하여 '2012년 8월말까지 시험선 구축을 완료하고, 1년 4개월간 종합성능시험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성호 녹색철도연구원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철도기술력 향상은 물론 연간 6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및 연간 약 1,700억원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참여 업체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녹색철도연구원 윤학선 기자)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기념 전시회 폐자재 기증

- 공단사업 홍보 및 철도 이미지 제고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주관하는 수인선복선전철 개통을 기념하고 철도의 추억을 되살리는 기획특별전 '수인선, 두번째 안녕' 전시회(5.1~7.1)에 수인협계선의 폐자재를 기증함으로써 공단 사업의 홍보는 물론 철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난 3월 26일 인천시립박물관으로부터 수인선 개통을 맞아 많은 시민들에게 수인선과 공단의 사업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폐쇄된 수인협계선 시설물의 일부인 폐철도 자재의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검토결과 전시기획단체가 지자체 부속 기관으로서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무상양여 대상기관이고, 전시회의 목적이 수인선 홍보와 역사기록을 연구보존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판단되어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요청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레일 20m, 침목 30점, 건널목신호기 등 전기시설물)하였다.

전시회는 5월 1일부터 2개월간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12. 6월말 수인선복선전철 개통을 기념하고 수인선의 역사와 사회, 인간을 조명하는 박물관 유물로 영구보존 활용함으로써 철도 불용품을 기증한 공단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은 물론 공단의 홍보 및 철도 이미지 제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본부 김수겸 기자)

호남고속철도 첨단공법 건설현장견학 행사

- 국내·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대학생 등 160여명 초청 -

공단은 국내 최대 다경간 연속교 공법과 강거더 일괄 가설공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교 건설현장에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7회에 걸쳐 인도네시아·네덜란드·파라과이의 3개국 철도공무원 50명, 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청 공무원 45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직원 25명, 우송대학교·우송정보대학교 대학생 40명 등 총 160여명을 초청하여 첨단 건설공법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체험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경간 연속교 공법(Free Cantilever Method)은 기 시공된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평형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이동식 폼(거푸집)을 이용하여 상부구조를 시공해 나가는 공법으로서, 국가하천인 미호천을 횡단하는 오송고가에 적용되었다. 또한 강거더 일괄 가설공법은 정밀제어가 가능한 1,350톤 대형 크롤러 크레인으로 강거더를 교각위에 거치하는 최첨단공법으로서 특히,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기법(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으로 실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에 적용되는 다경간 연속교 공법(FCM)과 강거더 일괄 가설공법은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첨단공법"이라고 소개하면서, "국내·외 관계자에게 견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건설공법 정보공유와 함께 국내 고속철도 건설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에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오송고가 구간에서 기존 경부고속철도 운행선 교량상부로 횡단하는 강교(160m)를 거치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장애인과 함께 하나 되기

- 충청본부, 평강의 집 2012 햇빛보기 자원봉사활동 전개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 KR봉사단은 지난 5월 26일 대전 수자원공사 운동장에서 사회공헌활동 후원기관으로 결연을 맺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평강의 집(대전 대덕구 대화동) 장애인 및 관련 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12 햇빛보기 행사에 참여(19명)하여 일일가족 자원봉사자로 장애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강의 집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평생 시설안에서만 생활하여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5월의 햇살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및 충청본부 직원들은 매년 참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가족 동반으로 참여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등 진정한 사회공헌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였다.

KR봉사단은 자체 준비한 간식 및 음료수를 제공하였으며 행사 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정성을 다하였다.

5월 황금연휴, 저마다 산과 들로 여행을 떠날 때 KR봉사단은 푸르른 잔디밭에서 장애인과 함께 텅 굴며 내일의 희망찾기와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본부 김건조 기자)



계시판

주요뉴스 (5. 24 ~ 6. 2)

- 한국철도시설공단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5. 24)
- KTX 경쟁체제 반드시 도입(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5. 24)
- 경부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61%(한겨레, 국민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광주일보 5. 24)
- 김충리 "KTX 민간참여, 우리금융 매각 예정대로 추진"(동아일보 5. 25)
- 호남고속철 전철설비공사 발주(광남일보 5. 25)
- 고속철도 수사정거장 허가 보류(국민일보, 서울신문 5. 25)
- KTX 민영화 토론회(대전일보 5. 26)
- KTX 경쟁체제 이어 제2총물 예고(서울신문 5. 28)
- 원주~강릉 복선전철 6월 1일 착공(조선일보 5. 28)
- 뇌물 준 건설사 공공 공사 못따대(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경기일보,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상일보, 경북일보, 중도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5. 28)
- 철도건설 전 분야 설계기준 국제화(서울신문 5. 29)
- 철도시설공단 철도 설계기준 국제화 방식 추진(충청투데이 5. 29)
- KTX, 제2공사 만들어 동일 노선 경쟁(조선일보 5. 29)
- 멈춰선 안되는 SOC투자(서울경제 5. 29)
- KTX는 왜 나주역을 거쳐야 하는가(전남일보 5. 29)
- 국내 유일 스위치백 철도 내달 27일 역사속으로(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강원도민일보 5. 30)
- 원주~강릉 복선전철 명칭 '동계올림픽 고속철도'로 하자(강원일보 5. 30)
- 폐철도 활용한 관광상품 '쾌속질주'(한국일보 5. 30)
-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이끌겠다(강원일보 5. 30)
- 불공정제도 개선 사이버센터 운영 (헤럴드경제 5. 31)
- 원주~강릉 복선철도 내일 첫 삽 (동아일보 5. 31)
- 국내 유일 '스위치백' 역사속으로... (조선일보 5. 31)
- 강릉~원주 철도 2천만 관광시대 연다 (강원일보 5. 31)
- 6시간 걸렸던 서울-강릉 기차길...KTX로 1시간 만에 간다(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매일경제, 강원일보 6. 1)
- 원주~강릉 철도 착공, 도 SOC 확충의 시작(강원일보 6. 1)
- 철도시설공단 철도역사 직접 설계키로(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 6. 1)
- 청림이 곧 국가경쟁력(서울경제 6. 1)
- 원주~강릉 복선철도 기공식(한국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6. 2)
- "서울~강릉 1시간대 철도길 꿈만 같다"(강원일보 6. 2)
- "세계적 투자·관광도시 급성장 기대"(강원일보 6. 2)
- 원주 '사통팔달' 교통·물류 중심지 부상(강원일보 6. 2)
- 영동선 철도이설공사 최근 완공(강원일보 6. 2)

경조사

-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김중환과장 결혼
 - 일시 : 2012년 6월 9일(토) 오후 3시
 - 장소 : 웨딩팰리스(수원) 그랜드 볼룸홀